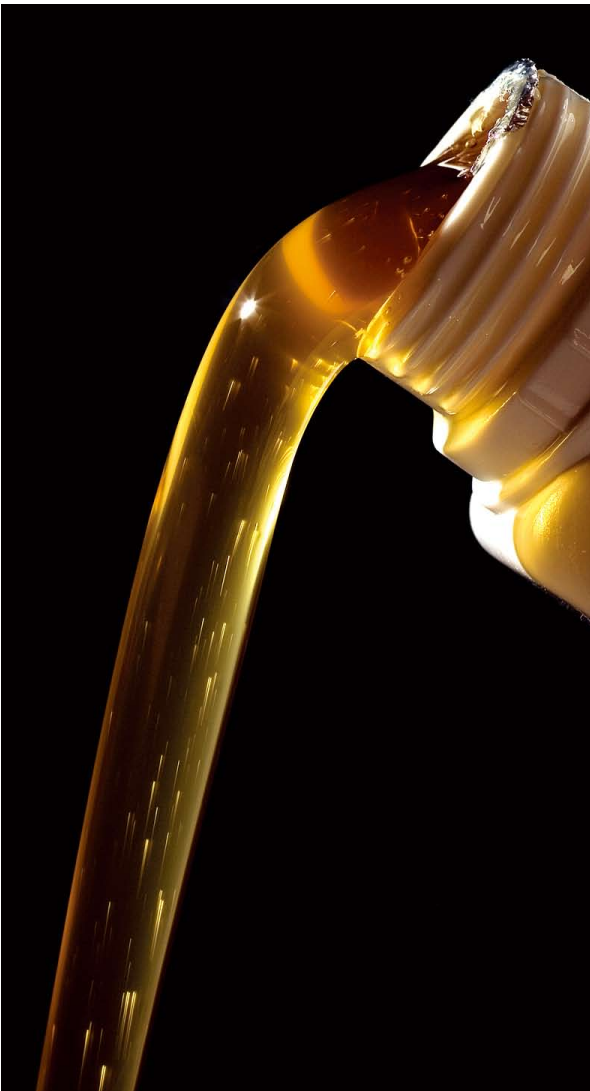


# 믿거나 말거나 7만km를 달린다



“어! 이 차 왜 이리 잘 나가지요, 엔진 튜닝했습니까?”

가끔 이용하는 대리운전자에게 듣는 말이다. 내 차를 몰았던 대리운전자 열명 가운데 서넛 정도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아무리 취했어도 이들의 말을 흘려버리지 못한다. 10년 가까이 타고 있는 고물차의 놀라운 성능을 칭찬해주는 말인 까닭이다.

내가 한 일이라곤 ‘모리스(MOREYS)’란 엔진오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1981년부터 운전을 했으므로 그동안 국내 각사와 수입 차종을 꽤 많이 몰아보았다.

여러 경험을 통해 선택한 엔진오일이 바로 ‘모리스’다. 60여년 전 미국의 클린턴 H 모리스란 인물이 개발해서 아폴로 우주계획에 활용된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주목하게 된 것은 필연이다.

좋다는 엔진오일을 제 차에 넣어보지 않은 운전자는 없다. 비록 자신의 차가 BMW나 벤츠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성능을 동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호박에 검은 줄을 그려 넣는다 해서 수박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난 호박에 끊임없이 검은 줄을 그려넣어 보

았다. 1%의 가능성을 흘려버리면 진보의 성취는 얻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인터넷을 뒤지고 경험자를 탐문했다. 7만km를 달릴 수 있다는 ‘모리스’ 엔진오일의 객관적 자료는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밑으로 떨어진다. 엔진 내부에 묻은 오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모리스’ 오일은

고물차도 잘 나가게 하는 기능 오일교체 비용·환경오염 해결 한국 수입사가 성능 보완해 출시 좋은 물건 뒤엔 좋은 인간 있어

중력에 버틸 만큼의 강한 점착력(粘着力)으로 실린더와 부품에 붙어있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밀져야 본전이다. 사실과 다르다면 원래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된다. 미지의 엔진오일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상식과 의구심을 뛰어넘는 엔진오일은 주행거리로 그 결과를 입증한다.

독자는 7만km를 달릴 수 있다는 엔

진오일의 성능을 믿지 못할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웬지 찜찜한 마음에 첫 번째 오일은 3만km를 주행하고 갈아버렸다.

두 번째 오일을 넣고 4만km를 달렸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성능의 의구심은 자체 임상 결과로 점차 희석되어 갔다. 지금 쓰고 있는 오일은 5만km째다. 이런 엔진오일을 만들어 파는 업체는 ‘뭘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 모리스사의 대표인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었다. 자신이 찾아낸 좋은 제품을 국내에 보급하려는 의지와 열성은 놀랄 만했다.

그는 미국 모리스사에서 기유를 수입해 필요한 성능 보완을 한 제품을 만든다. 불필요한 엔진오일 교체로 들어가는 비용과 환경 문제는 만만치 않다. 좋은 엔진오일의 사용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데 공감한다.

생산자의 논리 대신 사용자 입장에서 만드는 엔진오일. 좋은 물건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생각을 지닌 인간이 있다.

윤광준씨는 사진가이자 오디오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체험과 취향에 관한 지식을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에세이로 바꿔 이름난 명품 마니아입니다.